

재난방송새모델 만들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KBS 재난방송!



태풍 재난방송, 시청자 적극 참여... 영상 제보 폭증 지역별 '핀 포인트 방재' 방송... "재난 예방 방송" 새 지평 열어

가을 태풍이 전국을 잇달아 강타한 가운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의 '온 국민이 함께 만드는 재난방송'이 새로운 재난방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KBS는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 당시 24시간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해 특보 방송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시청자들의 활발한 제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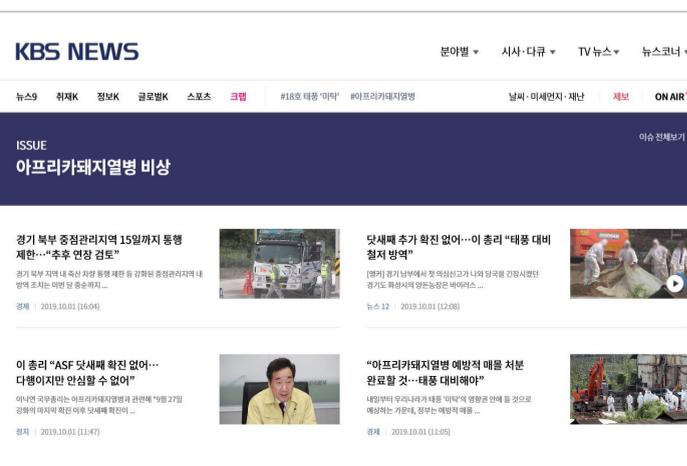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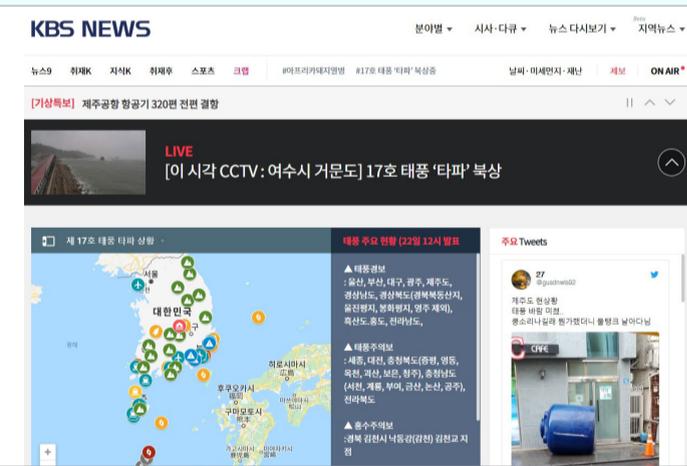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9월 7일과 8일 이틀 간 4만여 명이 카카오톡 KBS 제보창 등에 접속했고, '타파' 당시에는 5만여 명, '미탁'의 경우 3만여 명이 접속한 가운데 시청자 영상 제보는 '링링' 때 17,600건, '타파' 때 11,800건, '미탁' 때 11,300건에 이르렀다. KBS는 이 영상들을 피해 지점과 통제 구간 등을 중심으로 구글 지도에 표기해 한눈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시청자 영상을 지역별로 모은 <우리 동네 태풍 상황> 영상들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예방에 중점 둔 맞춤형 재난방송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 재난방송은 단순히 상황을 전달하는 수동적 재난보도에서 벗어나 '예방 재난방송'의 모델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 지역 정보와 CCTV를 공유 받아 상황을 전달하는 '융합형 재난 예방 방송 시스템'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같은 '핀 포인트 맞춤형 방재 정보 제공'은 더욱 유용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보 편성도 타 방송을 압도했다. 9월 6일과 7일 태풍 '링링' 관련 뉴스특보 시간은 1,680분으로, 타 지상파 채널의 3배, 종편 채널의 7~8배에 달했다. 또 21일부터 23일까지 태풍 '타파' 때는 1,140분간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KBS 재난방송은 이런 장시간 방송에도 불구하고 KBS만의 인프라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태풍 경로에 따른 지역방송국 자체 재난보도도 실시해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도 KBS 뉴스특보로

KBS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에도 적극적으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뉴스특보를 17일부터 24일까지 210분 방송해 예방 행동요령을 알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수화하는 물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방송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KBS 24'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 유튜브, 국내 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근 재난방송 개선 TF를 구성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데 이어, 재난방송 시스템 전반을 보강하고 수차례 자체 훈련을 본사 단위와 총국 단위로 실시한 바 있다.



새 프로그램 소개

달라진 KBS 시사·다큐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올 가을, KBS가 새로운 형식의 시사·다큐 프로그램 라인업을 선보였다.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새로운 시사·다큐 프로그램 <더 라이브>, <다큐 인사이트>, <시사 직격>을 만나보자.



다큐멘터리의 즐거운 뒤집기, 양방향 자연 다큐쇼 <다큐 인사이트>

다큐멘터리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다큐 인사이트>가 적격이다. 다큐멘터리를 집중 편성하는 <다큐 인사이트>가 지난 3일 선보인 첫 번째 시리즈는 '와일드 맵 4부작', 식물과 동물만 나오는 다큐에서 벗어나 배우 정일우와 최송현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외에 KBS의 방대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는 '모던코리아' 등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가득 채워줄 라인업이 내년 봄까지 준비되어 있다. ▶ 매주 목요일 밤 10시, 1TV

발 빠르게 현장 전달하는 데일리 시사 <더 라이브>

<더 라이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친절하고 알기 쉽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토크를 지향한다. 정치 토론부터 사건사고의 이면을 파고드는 코너, 경제 코너,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슈를 외국인 시점에서 풀어보는 이색 코너까지 다양한 고정 코너를 뒤 다양성을 더했다. 시청자들의 활발한 댓글 참여도 강점이다. 정통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한상헌 아나운서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이 진행을 맡았다.

▶ 매주 월~목 밤 10시 55분, 1TV / * 월요일은 밤 11시



더욱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

<추적 60분>과 <KBS 스페셜>의 빈자리를 채울 <시사 직격>은 탐사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이슈를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다루되 유연성을 높인 포맷으로 지난 4일 첫 방송됐다. 최근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을 맞아 화제를 모은 임재성 변호사가 진행자로 나섰다. <시사 직격>은 탐사기획팀도 별도로 구성해 시의성과 함께 심층성도 잡을 계획이다. ▶ 매주 금요일 밤 10시, 1TV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사규 개정 Q&A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10일, 사규 개정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었다. 회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현행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유급), 분할 불가(휴일 포함)	- 10일(유급), 1회 분할 사용 가능(휴일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일 단축시간 2~5시간 (주 근로시간 15~30시간)	- 일 단축시간 1~5시간 (주 근로시간 15~35시간)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합하여 1회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

■ Q&A

Q.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 전체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들어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분할된 2번째 휴가 시작일도 90일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공사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

Q. 개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A.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대법원, 진미위 '징계 권고' 조항 유효 확인

대법원은 지난 25일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규정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의 재항고심에서 재항고를 기각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진미위규정 제10조의 '징계 권고' 조항이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업규칙 불이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진미위의 모든 활동 자체가 유효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일에서 제기한 유효성 관련 논란은 종식됐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총 22건의 공정성·독립성 사례를 조사해 심의·의결했으며, 지난 7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KBS의 새 식구가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KBS는 지난 9월 23일, KBS미디어텍 직원 189명을 직접 고용하고 특정 업무직 사원으로 입사 발령을 냈다. 이번에 직고용된 189명은 그동안 계열사 KBS미디어텍 직원으로 소속돼 뉴스 진행, 보도 영상 편집, 동시 녹음, CG 등의 분야에서 KBS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왔다. 양승동 사장은 코비스에 게시한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공영방송사 구성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 "업무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혁신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KBS 통해 실시간 본다

앞으로 KBS를 통해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의 실시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전국 각지의 CCTV 영상과 함께 재난 방송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KBS 대전방송총국은 지난 8월 격렬비열도에 실시간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7일 개통행사를 열었다. 격렬비열도에 설치된 카메라는 인근 바다와 섬 일부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KBS 대전총국, KBS 본사 및 태안 군청에 전송한다.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은 지난 9월 초, <태풍 링링, 재난방송>에서 수차례 활용되어 태풍의 이동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태안 군청으로부터 공사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실시되었다.



이달의 PD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구분	부문	작품명	수상자
한국 PD연합회 이달의 PD상	TV 시사·교양 정규	<김열철의 동네 한 바퀴>	윤진규, 이호진, 윤돈희 PD 김소담, 김민정 작가
	TV 예능	KBS 3.1운동 100주년 기획 윤동주 콘서트 <별 헤는 밤>	고국진 PD, 정인해 작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밀정> 2부작	이재석, 이세중, 권순두, 이정태 기자
	지역 기획보도	KBS 전주 <뉴스 9> 1.5°C의 비밀, 목조건축	김진희, 신재복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밀정> 2부작	이재석, 이세중, 권순두, 이정태 기자
	지역 취재보도	KBS 대전 <뉴스 9> 남 기준치 초과 수도계량기 대량 유통	성용희, 유민철 기자



시대별 대표 한국영화, 안방에서 만난다

12편의 시대별 대표 한국 영화를 KBS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KBS와 한국영상자료원은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방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12시 45분 1TV를 통해 12편의 영화가 방송된다. 영화들은 모두 디지털 복원됐으며, 특히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이만희 감독의 <휴일>을 포함한 8편의 작품은 영상자료원의 복원 노력과 KBS의 기술력이 만나 고화질 UHD로 방송된다.



KBS 정년퇴임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67명의 사우들이 9월 30일 자로 정년을 맞았다.

KBS는 9월 25일 오전 10시, KBS 아트홀 로비에서 2019년 3분기 정년퇴임식을 열고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2019년 3분기 정년퇴임자 67명 명단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최수형	심의실	김석호	해설위원실	김귀화	수신료국	이종국	대전방송총국 보도국
이상출	심의실	채형원	시사제작국	최은규	수신료국	오민원	대전방송총국 총무국
은희각	심의실	김창범	시사교양1국	이창돈	수신료국	김종룡	청주방송총국 기술국
윤영미	시청자서비스부	박석규	협력제작국	이성희	경영정보국	황호연	충주방송국
정현조	시청자서비스부	문정옥	라디오편성기획국	김진철	시설관리국	노각현	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국
조성준	시청자사업부	박주현	라디오센터	이상배	시설관리국	이진동	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국
김혜란	대외협력국	양세주	방송네트워크국	김중형	안전관리실	홍준기	강릉방송국
박근수	미디어기술연구소	김연준	TV기술국	신호길	안전관리실	강대옥	강릉방송국
김영미	편성전략국	전창수	TV기술국	장충순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	최일표	강릉방송국
한상길	국제방송국	염장철	TV기술국	박동인	부산방송총국 기술국	이기환	강릉방송국
국순엽	국제방송국	정의영	TV기술국	이종천	대구방송총국 기술국	최명덕	원주방송국
김관동	아나운서실	김충열	TV기술국	박명성	포항방송국	김열우	원주방송국
최은	영상제작국	윤재균	보도기술국	남신덕	광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	이찬우	제주방송총국 편성제작국
한상덕	통합뉴스룸	박경용	중계기술국	박용규	전주방송총국 기술국	오남훈	제주방송총국 기술국
김병길	통합뉴스룸	황수하	중계기술국	김윤찬	전주방송총국 기술국	양희성	관현악단
김연태	통합뉴스룸	박근성	경영관리국	이영수	전주방송총국 총무국	방승환	국악관현악단
임흥순	해설위원실	김영훈	수신료국	안명희	전주방송총국 총무국		

전국체전 100년의 감동, KBS와 함께!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가 지난 4일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전국 체육대회 주관방송사인 KBS의 고품격 중계방송은 이번 체전에 이어 15일부터 열리는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이어진다. KBS는 매년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주요경기를 중계 방송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민통합 계기 마련이라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 중계는 KBS... UHD 중계로 생동감 UP!

올해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와 18개 해외지역 동포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양궁, 펜싱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고품격 중계방송을 선보였던 KBS는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경기를 UHD로 중계해 생동감을 높였다. 전국체전 경기를 UHD로 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는 지난 4일 '몸의 신화, 백년의 탄생'을 주제로 한 개막식을 1TV로 생중계해 화려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경기 중계 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기 이끌어

KBS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특집 전국노래자랑>은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린 송파구에서 녹화됐다. 또 지난 3일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 <서울, 운동장>은, 1920년 제1회 전조선경기대회 이후 100년에 걸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한국 스포츠의 흐름을 짚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KBS는 이외에도 공익 캠페인과 <박은영의 FM대행진> 퀴즈 코너 등을 통해 전국체전의 열기를 이끌고 있다.



가을, 신선한 드라마들이 온다

드라마 시장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진부하지 않은 스토리와 독특한 개성의 단막극들로 해마다 호평을 받아온 <드라마스페셜>이 그 주인공!
KBS <드라마스페셜>은 올해도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신인 연출자와 작가의 등용문, KBS <드라마스페셜>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단막극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온 KBS. 올해도 2TV <드라마스페셜>을 통해 10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2019 <드라마스페셜>의 포문을 연 작품은 지난 9월 27일에 방송된 <집우 집주>. 어느 동네, 어떤 집에 사는지 가 곧 신분이 되는 시대에, 결혼을 앞둔 평범한 청춘들의 '신혼집 구하기 프로젝트'가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로 그려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드라마스페셜>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지속해온 프로그램으로, 연출자의 소중한 데뷔 무대이자 신인 작가 발굴의 장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이현석, 나수지, 이호 PD가 첫 연출작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매주 금요일 밤 11시, 2TV

<드라마스페셜 2019> 라인업

방송일자	작품명	연출	작가	내용
9/27	집우 집주	이현석 ★	이강	초라했던 어린 시절 집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주인공의 신혼집 구하기 현실 로맨틱 코미디
10/4	웬 아이가 보았네	나수지 ★	김예나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남자와 돌봐줄 이 하나 없는 여자아이, 두 사람이 그리는 휴먼 드라마
10/11	렉카	이호 ★	윤지형 ♣	사실 렉카 기사가 납치 사건을 목격하고 사건을 추적하는 국내 최초 렉카 액션극
10/18	그렇게 살다	김신일	최자원 ♣	절박한 벼랑 끝 삶에 내몰린 퇴직 형사의 딜레마를 다룬 스릴러
10/25	스카우팅 리포트	송민엽	이주영 ♣	퇴물 야구 스카우터가 태어났는지도 몰랐던 야구 선수 아들과 엮이면서 아버지가 되어가는 성장드라마
11/1	굿바이 비원	김민태	김민태, 조아라	23살부터 31살까지 8년 동안 살던 반지하 자취방에서 이사를 준비하는 여주인공의 이야기
11/8	사교댄스의 이해	유영은	이강	<사교댄스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통해 주인공들이 콤플렉스를 극복해가는 로맨틱 코미디
11/10	때때고 광내고	나수지	배수영	<범죄 현장 청소 전문> 업체에 취업하게 된 주인공이 의문의 사건을 추적해 가는 이야기
11/15	감전의 이해	이호	김승원	감전을 당한 남자 친구에게 벼락 이별 통보를 받은 주인공의 좌충우돌 극복기
11/22	히든 (Hidden)	이현석	윤지형	의도치 않게 일어난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스릴러

★ 연출 데뷔작 ♣ 작가 데뷔작